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무등산의 익새 바람. 거리에 물든 나뭇잎. 들마다 가을
마다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누구라도
감성 염서 하나 쓰고 싶다.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하고하는 학생들이 삼삼오
오 모여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 하나를 손에 들고 깔깔
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따뜻한 어묵, 그리고 학생들
의 웃음소리. 낭만자객이라도 된 듯 물끄러미 그들의 모
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친구와 어
묵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수다를 떠는 청춘, 나뭇잎 하나
가 굴러가는 것만 보아도 웃음이 터지는 시기다.

며칠 전 지인들과 가을꽃을 보러 갔다. 형형색색 피어
난 꽃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예쁜 꽃 앞에서 사
진을 찍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에 앉았다. 그런데 지
인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이 매
달라 가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는 작은 것에도 마음이 움
직였다.

비 온 뒤 생강 물웅덩이를 첨병거리며 좋아했고, 길가
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친구
와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배꼽을 잡고 웃었다.

기고

황중문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장



사다리는 승·하강을 위한 통로이자 높은 곳에서 작업
할 때 사용하는 도구지만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 기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
다리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346명, 부상자
는 4만554명에 달한다.

정부도 사다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사다리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이 겹치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다리 사고의 원인은 크게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 과정
의 문제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제품 측면에서는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국
내 사다리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
원 소관 제도와 연계돼 있지만, 산업용 사다리에 특화된
형식 분류와 별도의 안전인증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용 단계에서도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나타난다.
202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 사다리 작업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새로운 것은 넘치는데, 왜 우리는 권태로운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는 감탄하지 않게 되
고,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 쓸쓸하
고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보아도 잠시뿐이다. 맛있
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예쁜 물건을 사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 머
물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자극을 찾는다. 어쩌면
우리는 재미가 없는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재미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인의 이야기를 듣자니 27년 트랜드를 소개하는 ‘권태
사회’라는 언어가 떠올랐다. 권태사회는 개인의 감정이나
부부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권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반
복과 익숙함 속에서 무기력과 무관심을 경험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권태는 단순히 지루
하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새로운 것에도
쉽게 감동하지 못하며, 무엇을 해도 오래 만족하지 못하
는 상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는 더 코고 강한 자극을 찾아야 할까. 어쩌면 그 반대인지
도 모른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있
는 작은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권태 사회의 관련된 언어를 찾아보니 관계, 일상, 소비,
사회, 감정의 권태를 제시한다.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요즈음 가장 권태를 느끼
는 것은 정치의 권태다. 정치 이야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진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짜증만 난다. 처음
에는 화가 나고, 기대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슷한 주장과 반박, 반복되는 갈등과
공방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진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다. 이것이 어찌
면 정치의 권태인지도 모른다. 정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
라 정치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도 정작 내 삶을 움직이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상태다. 정치적 권태는 단순한 정
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과 공방 속에서 공
동체의 문제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침체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더 빠른 속도도, 더 새로운 자극도 아닐 것이다. 잠시
멈추어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도 마
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새로운
것은 넘치는데 마음이 권태롭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바라볼 때인지도 모른다.

권태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재미가 아니라 감
탄하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조금 늦춰볼 일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잠시 눈길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의 웃음소리에
도 귀를 기울여 보자.

어쩌면 권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다시 설레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산하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직도 작은 것
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다리 작업 사고 예방, 현장서 답 찾아야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
한도 줬다.

사다리의 버팀대는 사다리가 지면을 딛고 서 있도록 하
는 수직 부재를 말한다. 벽에 기대어 사용하는 일자형 사
다리는 버팀대가 2개이고, 발붙임 사다리인 A형 사다리는
4개다. 일자형 사다리는 벽면에 기대어 사용하는 특성
상 특정 작업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의 구조가 제한되면서 일부 작업자는 기존
작업 방식과 규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물론 작업자가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
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허용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작업환경에
서 안전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편리함 때문에 사다리를 손쉽게
선택하는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다
는 이유로 사다리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사
업장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법과 규정은 안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지만, 모든 작
업환경의 위험을 일일이 없애 줄 수는 없다. 결국 사업주
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더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
다. 안전장치가 갖춰진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올바
르게 사용하는 실천이 뒷받침될 때 제도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용 사다리의 보급과 활용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산업용 사다리는 상부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을 갖추고,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 설계와 아웃리
저 등 안전장치를 적용한 제품이다. 천장이나 벽면 작
업을 할 때 작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설계돼 추락과 전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도 산업용 사다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S마크 인증은 해외 안전인증 기준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임의안전인증
제도다. 다만 산업용 사다리는 기존 가정용 사다리에 비
해 휴대성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있어 현장 보급이 더
딘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휴대성과 안전성을 높인 ‘K-사다리(한국
형 안전사다리)’를 개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재정 지
원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관련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업체가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제
도를 적극 활용해 작업 여건에 맞는 안전한 장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규
제나 제도적 개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스
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현장 실천
방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안전한 ‘산업용 사다리’의 도입은 단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물론 통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직
운영부터 종목단체의 역할, 예산과 선수 지원까지 풀
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체육회 통합의 중
심에는 언제나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합은 단순히 두 조직의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작
업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이 각자 쌓아온 체육의 강점
을 모아 선수들에게 더 나은 훈련 환경과 기회를 제공
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선수들이 흘린 땀의 무게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의 금메달이든 전남의 금메달이든 모두 지역 체육
이 함께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과다. 서로의 승리를 축
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부터 진정한 통합은
시작될 수 있다.

전국체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메달 색깔
과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광주·전남 선수
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하고 있
다. 이제 그 노력에 더 나은 미래로 화답하는 것은 체육
행정의 몫이다.

사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기대되는 이유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전남광주에 민
간인으로 구성된 ‘전남광주반도체 포럼’이 설립돼 눈에 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시민사회, 청년, 여성경제인 등 كافة 인사가 참
여한 이 포럼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에 민간의 참여를 더해
기업의 투자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9월 3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한 달여 만인 19일 창립총회와
법인 설립허가.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
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 등이 출연한 4억5000만원을 초기 재원으로 해 반도체 앵
커 기업과 지역 상공인, 시민으로까지 참여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할 인력, 지역 협력기업,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주
여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투자 정
착 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민 공론장 운영, 정책·인프라 제안
등을 정했다.

우선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교육·산업 기반을 연결하고, 행정의 지원
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현장 과제를 민간 차원에서 발굴하기 위해 현장
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양성과 소부장 협력망 구축을 중점 추진키
로 했다.

또 올해 사업으로는 50개 분과 협의체 구성과 기업 정주여건 실태조
사,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호남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 공론장’도 광주에
머물지 않고 전남 동·서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실 반도체전략연구원도 설립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과 시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클러스터 안착을 위한 정책과 실
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키로 했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와 인재를 적기에 연결
하고, 시민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세계적 반도체 거점을 만드는 교두
보가 되길 바란다.

나주 에너지 공기업 지역상생 너무 형식적이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이 형식적이란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5년간 나주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구매가
거의 없는 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나 지역인재 의
무비율도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나주혁신도시 소재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
KDN 등 4개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총 346억6314만1000
원이었다. 반면 이들 기관의 나주사랑상품권 구매액은 8488만원에 불과
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의 0.25%에 그친 것이다. 한전은 정도가 심
하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255억7846만원여치나 구매했지만 나주
사랑상품권은 단 한 푼도 사지 않았다.

나주시가 2007년부터 발행한 나주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들어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화폐가 빠져 있는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온누리상품권 구
매 실적은 0.3점이 배정돼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평가 항목에서 빠
져 있었다.

또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권고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월 4
회 중식 휴무 확대도 형식 그자체였다.

이들 기관 대부분이 직원들의 출장과 연가가 가장 많은 금요일에 운
영해 지역상가에 별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역인재 채용 역시 ‘도식적’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적용 대상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해 한전은 최근 5년간 매년 의무비율
을 달성했다.

하지만 전체 신규채용 3383명중 지역인재는 466명으로 13.8%에 그
쳤는데 이는 경력직·연구직과 소규모 채용 분야 등을 예외규정으로 뒤
의무채용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전
체 채용에서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있으나만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취재수첩

금빛 땀방울이 비추는 통합체육의 내일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제주에서 연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제107
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들이 눈부
신 활약으로 지역 체육의 지력을 보여주었고 있다. 시상
대 위에 선 선수들의 환한 웃음 뒤에는 수많은 흘린 땀
과 노력이 있다. 그 값진 결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고 싶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의 활약
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광주는 역대 손현호와 안시성이 나란히 3관왕에 올
랐다. 특히 손현호는 한국신기록까지 작성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스쿼터 박술민은 2연패를 달성했고,
육상 높이뛰기 윤준호도 금메달을 보냈다.

전남에서는 근대5종 서창완이 3관왕에 올랐고, 육상
세단뛰기 서예지는 3연패를 이뤘다. 사격 홍석진을 비
롯한 여러 종목의 선수들도 금빛 낭보를 전하며 힘을
보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광주는 금메달 45개 등 총 144
개, 전남은 금메달 33개를 포함해 140개의 메달을 수
확했다. 하지만 메달 숫자가 선수들의 가치를 모두 설
명하지는 못한다. 단 몇 초를 줄이기 위해, 몇 cm를 더
뛰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과 싸워온 선수들이다. 시상
대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도전
역시 금메달 못지않게 빛난다.

무엇보다 올해 전국체전은 광주·전남 체육계에 남
다른 의미를 지닌다. 광주·전남체육회가 통합을 앞두
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출전한 선수들
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역 체육의 가능
성을 증명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의 체
육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꿈을 펼치게 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형인	사장 편집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